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문화와 창조

도시와 삶

시민들이 도시를 만들도록 하라



노경수

도시계획 결정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중요한 행정이다.

주민이 계획과정의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어야함은 당연하다.

민선 5기 광주시의 5대 핵심과제 중 첫 번째가 ‘참여·소통의 자치공동체’이다. 이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광주시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나 참여의 폭 확대 등을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시정분야에 대한 공청회와 설명회 개최 청구는 물론 각종 위원회 회의 결과도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등 시정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도시계획 결정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중요한 행정이다. 주민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항의하기도 하고 따라서 민원도 각양각색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나 아직 행정은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수준만큼 반영해야 하는 지를 가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참여의 초창기인 1990년대에는 계획수립과정에서 참여하는 주민의 숫자를 최대한으로 늘리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당국에서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면 논의된 내용과 무관하게 성공적인 참여과정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초창기의 시행착오를 거친 뒤 최근 도시계획에서는 참가하는 주민의 수보다는 ‘대표성’과 ‘의미성’을 갖는 시민참여에 초점을 둔다. 남노소, 빈부, 은퇴자와 현역, 농촌과 도시,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지방색, 학력 등과 같은 폭넓은 견해와 가치를 대표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표성 있는 주민참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시민단체, 이익단체, 직능단체, 공공단체 등의 전형적인 이해집단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의미성’

은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그에 따라 실제 계획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이 계획과정의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도시계획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주민참여 방식은 ‘공청회’와 ‘주민의견청취’ 제도이다. 이제도들은 계획수립과정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시행하기 때문에 수립된 계획안을 추진하는 정도의 기능에 머물러 있으며, 법적으로 필수요건이지만 대표성과 의미성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주민참여의 방식은 아니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도시계획 과정에서 바람직한 주민참여방식은 공개적인 주민좌담회를 계획 착수나 과제 발굴에서부터 최종 계획안을 만들 때까지 여러차례 개최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초기에 참여할수록 내용을 이해하게 되고 주민의 협조를 통해 계획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의미성’을 높일 수 있는 최근의 수법으로서는 주민대표, 담당공무원, 전문가집단이 한 팀이 되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법은 마을광장이나 어린이 공원과 같은 마을 단위의 시설디자인에 주민을 참여시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주민들이 도시계획 전문가와 함께 계획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의견을 반영하거나 계획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도시계획에서 빠질 수 없는 주민참여제도가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최근에도 그 기능과 역할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행정기관의 거수기 역할만 한다며 이 위원회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순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담당공무원들이 안전마다 사전조

사, 현장답사,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고, 통과가 어려운 사안은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대표로 참여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결정에 검증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나치게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오히려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일정할 틀’ 내에서의 소극적인 논의 등의 문제점도 부각될 수 있다.

위원의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함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신공격이나 각종 외압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해 미공개 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안전별로 심의결과만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주민참여는 향후 계획의 초기부터 주민과 계획전문가, 공무원이 하나의 팀을 만들고 이 새로운 계획주체가 ‘대표성’과 ‘의미성’을 충분히 담아낼 때 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전문인력 보충, 계획기간 연장, 예산증액 등 창조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사고를 근간으로 한 적극적이며,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계획전문가는 주민참여에 따른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행정기관은 그에 따른 제도와 틀을 마련하며, 주민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닌 도시 모두를 고려하는 자세를 갖추다면, ‘민주도시’ 광주의 모습도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칼럼

시몽



죽음의 신(神)은 공평하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찾아온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생이 있으면 꼭 죽음이 있다. 구십이 넘는 긴 수명을 누리 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린 나이에 요절하는 사람도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법인으로서의 알 수 없는 인생의 부조리며 그야말로 운명이다. 일찍이 희랍 사람들에 의하면 그것은 운명의 여신(女神)의 장난으로 생각했다. 운명의 여신 모이라(Moira)는 인간의 수명을 주관한다.

인간의 운명은 알 수 없는 어둠에 쌓여 있다는 뜻이다. 운명은 곧 부조리요 수수께끼다. 사람의 생명에 길고 짧은이 있다는 것은 불평등하지만 죽음의 신은 모든 인간에게 예외없이 찾아온다는 것은 자각히 공평하다. 죽음은 바람처럼 홀연히 찾아온다. 아무 예고도 없이 생명의 문을 검은 손으로 두드린다. 여기에 죽음의 무서움이 있다. 인간은 일순간 잊어 잊혀진다. 이와 같이 죽음은 언제든지 무시로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준비와 각오가 필

죽음이라는 질문

운명의 세 여신 중 하나인 클로토(Klotho)는 생명의 실을 짠다. 클로토는 ‘실을 짜는 자’라는 뜻이다. 클로토가 짠 생명의 실을 라케시스(Lachesis)가 마음대로 할당한다. 어떤 사람한테는 50년의 수명을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의 목숨을 정한다. 이처럼 생명을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것은 라케시스의 마음에 달렸다. 그가 정한대로 아트로포스(Atropos)가 수명의 실을 가위로 잘라 버린다. 일단 자르고 나면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아트로포스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운명은 필연적이요 결정적이다. 운명의 여신 모이라는 ‘뒤편’이라는 뜻이요, 할당이라는 의미다. 우리는 각자의 수명을 저 운명의 여신한테서 할당을 받는다. 철학적 사색의 천재였던 희랍인들은 인간의 수명을 이렇게 생각했다. 인도나 중국 같은 동양인들의 죽음의 철학과는 정반대되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운명의 세 여신은 모두 닉스(Nyx)의 딸이다. 닉스는 희랍신화에 나오는 밤의 여신이다. 밤의 여신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요하다. 언제 오더라도 태연자약하게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와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낡아마자 죽어가고 있으며 끝은 언제나 시작과 결부되어 있다.” 이것은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의 말이다. 하루하루 우리는 죽음과 접근한다는 말이다. 또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죽음은 생(生)의 종장이요, 삶의 오메가는 죽음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죽음의 검은 손이 우리 생명의 문을 냉혹하게 두드릴 때 어지러운 꿈을 하지 않고 범연하게 나실만한 마음의 여유를 평소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혼자 죽어야 한다. 죽음은 나와 가장 깊은 실존적 관계를 갖는 생의 현상이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다. 죽음은 나 혼자 하고만 관계를 갖는다. 우리는 죽음에서 인간의 개체성이라는 엄연한 한계에 부딪힌다. 부처님도 하느님도 어찌할 수 없는 나 혼자만의 일이다. 나 밖에 관여할 수 없는 나의 실존적 상황이다. <장성 백영사 주지>

기고

이왕무



우리나라의 토지에 관한 기록은 1910년대 일본인의 토지점탈과 세원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에서 출발한다. 당시의 토지조사사업은 식민지 정책노선의 일환으로 일본인에 게 토지를 불하하고 일본의 식량 부족에 대비하여 식량과 원료를 본국으로 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재산권의 범위와 한계를 결정짓는 정보의 정확성에는 관심이 없었으므로, 이때 작성된 지적공부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노

태는 6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학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남북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다가올지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렵다. 최근의 국제 정세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의 통일은 결코 요원한 현실이 아니며, 독일과 같이 갑자기 남북분단의 장벽이 무너질 경우 북한 지역의 안정적인 통치와 경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가장 먼저 착수하여야 할 사업 중의 하나가 토지재조사사업이다. 토지재조사사업은 예산상의 문제 못

토지 재조사사업에 무한한 협조를

출하고 있다. 토지재조사사업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업무로, 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 불부합치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의 경제 복원력을 향상시키며 일괄지의 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서 능률적인 토지관리체 계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과거 일제시대에 시행했던 토지등록부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현행 법제·기술적 측면을 보다 완벽하게 반영하여 토지관리를 현대화하고 선진 복지국가 건설을 추진하려는 방대한 사업이기도 하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토지재조사사업은 사업비만도 국토해양부(2009년) 추산 3조7000억원에 달하며, 이중 전 국토를 실제 현황에 맞도록 재측량하기 위한 측량비는 추산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2조5000억원에 해당한다. 물론 남북통일을 대비한 기술축적과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지않게 기술적, 사회적, 법률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불부합치에 대한 측량시나리오가 명확히 뒷받침될 수 있는가? 산재해 있는 불부합치를 어떤 방식으로 우선 측량하고 향후 측량될 여타 지역과 문제없이 통합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사업추진단계에서부터 완료단계까지 매 단계마다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사업이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는가? 법률적인 뒷받침이 보장되었는가? 등은 우선 고려 대상이다. 다행히 정부는 이를 위하여 9월에 ‘지적재조사특별법’을 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외에도 전국적인 토지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절대적인 관심과 무한한 협조가 필요하며, 우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사료된다. <동강대학 토지정보관리과 교수>

식당 종업원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교양인 되길

얼마 전 아들이 일하는 레스토랑에 간 적이 있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종업원들에게 반말을 하는 걸 보았다. “아이, 메뉴판 가져와 봐. 냅킨 좀 가져와, 여기 계산, 카드 되지?” 이런 식의 반말로 종업원들을 마치 자기네 하인 다루듯 했다. 식당 종업원들도 누구와 다를 바 없는 고귀한 인격체다. 그 종업원들도 밖에 나가면 다른 식당에 가서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이고 이런 사람들의 직장이나 사업 영역에서는 중요한 고객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식당에 와서 무조건 하대하고 하인 다루듯 하는 줄부 근성은 정말 꼴불견 그 자체였다. 식당 종업원에게 좀더 부드럽게 말하는 교양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반말로 세우는 줄부 권위보다 더 품위있는 지성인이 될 것이다. ▲이영애·광주시 북구 문흥동

시설

前 여수시장 자수, 전모 조속히 밝혀내야

오현섭 전 여수시장이 두 달간이나 도파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오 전 시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경찰이 전모를 밝히는 것만이 여수시민들의 구겨진 자존심을 다소나마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사실 오 전 시장의 도파행각은 여러 모로 모방재가 좋지 않았다. 도파 자체가 역대의 뇌물수수물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도망자’라는 굴레는 시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기는 일이었다. 시장까지 지낸 사람으로서의 비굴한 행각을 싣듯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번 뇌물사건은 오 전 시장을 비롯해 경관조명 시공업체인 나이토피아사로부터 2억6000만원을 받은 김모 전 국장과 시 의원들에게 돈을 뿌린 오 전 시장의 측근 주모씨, 그리고 시 의원 10여명 등 상당수에 이른다. 경찰은 먼저 김씨와 오 전 시장의 공모 부분, 김씨가 주씨에게 1억원을 전달한 이유, 주씨가 시

의원 10여명에게 돈을 살포한 경위와 10여명 의원의 명단 확인 등 전모를 밝혀야 한다.

또한 나이토피아사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목포, 해남, 여수 등 광주·전남 자치단체를 상대로 30건을 시행하는 등 사업을 독식했다고 한다. 특히 지난 5월 해남에서는 현지 군수가 이 회사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았다가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병행해 의혹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현재 여수시는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지역 분위기가 크게 침체되고 2012 세계박람회 열기도 급속히 냉각돼 있는 실정이다. 현 김중석 시장도 측근들의 불법 선거로 인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따라서 경찰은 뇌물수수사건의 실체를 한층 외곽 없이 밝혀내되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수사가 장기화되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세계박람회 준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로호 3차 발사 줄속 추진 안 된다

나로호 3차 발사에 대한 한국과 러시아 간의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나로호에 실릴 위성이 과학기술위성 2호가 아닌 검증용 위성이 탑재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위성 2호를 제작할 때 똑같은 규격과 성능을 지닌 위성을 2개 만들었으나 지난 1. 2차 발사 때 각각 소멸·폭발해 위성을 다시 만들어야 하나 예산·기간 문제 등으로 쉽지 않아 위성의 임무와 수명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나로호 3차 발사에 탑재될 위성 제작 방향을 놓고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기존의 과학기술위성 2호와 똑같은 위성, 또는 임무와 수명을 축소시켜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은 위성, 즉 ‘검증용 위성’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위성을 제작할 경우 2~3년의 기간이 소요돼 우주발사체 개발 계획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최소한의 기능만 담은 위성을 만들거나 검증용 위성을 장착하는 교육책을 대안

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검증용 위성의 경우 발사 이후 목표지점에 도착, 비콘 신호를 보내는 것까지만의 역할에 그쳐 당초 기대했던 과학기술위성 2호와 같은 성과는 거둘 수 없다. 또한 검증용 위성 역시 발사 경험이 전무한 실정이라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자칫 3차 발사가 실패할 경우 줄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나로호는 우주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중요한 도전이다. 1. 2차 발사가 실패했지만 꾸준히 발사를 시도하는 이 유다. 나로호 발사는 정치·사회적 이벤트가 결코 아니다. 발사 시기가 비용 부담에 얽매어 줄속으로 추진되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

나로호는 한국 우주산업의 도약점이 아닌 도약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로호 3차 발사는 완벽한 준비로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기술 확보의 디딤돌이 돼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39년 7월 4일, 뉴욕양키스 스타디움, 8만명의 팬과 뉴욕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키스의 최고 영웅 루게릭에 대한 은퇴식이 열렸다. 양키스의 영원한 4번 타자로 2130경기에 연속으로 출장했던 루게릭은 근육이 점차 위축되면서 움직임이 불편해지자 두달전 자진해서 은퇴했다.

답사를 하기 위해 루게릭에게 마이크가 넘겨지기 직전, ‘팀’이란 이름의 12세 소년이 덕아웃에서 걸어나왔다. 목발을 내던진 소년은 혼자서 홀플레이트의 루게릭에게 걸어가 열사애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재수 좋은 사나이로 생각합니다”라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불멸의 이 한마디는 2년전 팀과의 인연에서 비롯됐다. 당시 루는 경기를 위해 사카고에 들렀다가 소아마비로 병원에 입원중인 팀을 만나게 된다. 재활요법을 거부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팀의 부모가 루에게

방문을 부탁을 한 것이다. 자신의 영웅을 만난 팀은 “오늘 시험에서 출력을 쳐주면 걷는 법을 배우겠다”고 말했고 루는 출런 2개로 소년과의 약속을 지켰다. 용기를 얻은 소년은 재활훈련을 통해 장강엔 루게릭은 근육이 점차 위축되면서 움직임이 불편해지자 두달전 자진해서 은퇴했다.

있었다. 은퇴식이 열린 후 2년만에 루는 사망했고 그의 이름을 따 ALS가 ‘루게릭병’으로 불리게 됐다.

“루게릭을 죽게한 것은 루게릭병이 아니라 야구였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매사추세츠주 재향군인 야구역사에 길이 남을 루게릭의 명 연

회병원 연구팀이 루게릭의 사망원인이 운동하면서 얻은 뇌손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격한 운동으로 뇌를 다치면 루게릭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의사실상 뇌병증’이란 병이라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루게릭병이란 이름도 바뀔지 모를 일이다. /장필수 사회부차장 bungy@

루게릭병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結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書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어문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교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